과학 에세이

한글날 有感

文 仁 炯
〈한양대 교수 / 재료공학〉

한글날이 작년부터는 유감스럽게도 공휴일이 아닌 단순 기념일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10월9일은 우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과학문화인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서 창조되어 반포됨을 기념하는 한글날이다. 4천년 우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은 우리의 글 한글을 창제하셨을 뿐만 아니라 치세 기간중 측우기, 자격루, 앙부일구 및 새로운 청동활자 등을 제작하는 등 천문역학, 농업기상 및 인쇄기술 등에서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만한 수많은 과학과 기술분야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셨다. 그가 이룩하신 역사적 위업은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국민들 모두가 비교적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수많은 세종의 과학, 기술 및 문화적 업적 중에서도 특히 한글창제야말로 세종대왕께서 훗날 후손들이 한민족이 과학문화인이라는 것을 세계를 향해 자랑할 수 있도록 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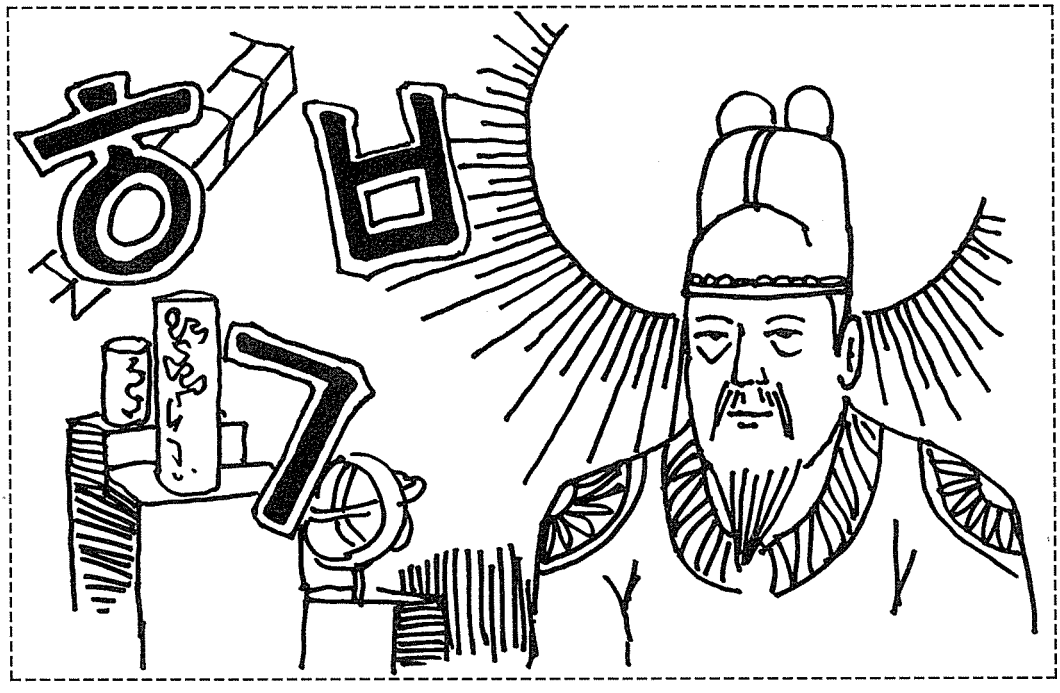
지난 7월 중순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열린 소결(燒結)과학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시간여유가 있어 옛 오사카 국제무역박람회장 경내에 있는 일본국립민속박물관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각국의 말과 글의 기원을 설명한 전시물들을 살펴보다가 필자는 그곳에 게시된 한글의 소개설명문을 읽고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 우리 민족의 글인 한글을 소개한 설명문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의 글인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표음문자로서 발음할 때에 음소 하나하나가 모음 또는 자음의 글자모양 하나하나와 일치하도록 만들어졌으며, 24자를 적절히 모아 쓰면 모든 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글이다. 특히 한글은 세종대왕이란 한 사람의 높은 뜻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의 유일무이한 창조적인 글이다』

역사이래 우리와는 항상 껄끄러운 경쟁관계에서 살아온 일본인들이라, 그들이 우리문화나 과학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편견이 우선할 것이라고 믿어온 필자로서는 일본인들마저 격찬하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 대해 품었던 오해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우리글 한글에 대한 이제까지의 무관심 내지는 무지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

태어나서 한두살 때부터 배우는 말과 함께 국민학교 진학 전후부터 쉽게 배워 사용하는 한글의 혜택을 우리는 숨쉬는 공기와 같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글이 없기 때문에 통신의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는 민족 패망까지를 가져왔다는 「잉카」 문명의 종말이란 역사적 교훈이외에도, 지구상에는 자기글이 없어 자기말과 남의 글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글은 있되 너무 어려워 고통받는 민족의 예가 얼마나 많은가?.많은 사람들이 국민학교 시절부터 시작하여 각급 학교를 통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수없이 듣고 배워 왔음에도 아무도 이를 피부로

느끼지 않는 것은 그 우수한 글의 혜택이 너무나 가없이 크고 넓어 아무도 그 끝을 보지 못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전문학자나 관련기관 및 대중언론매체 등에서도 한글이 과학적이며 우수한 글이라는 점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용이하게 설명해 주는 그간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모든 국민이 우수한 우리글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면 한자(漢字)공용문제나 한글날이 왜 우리민족에게 거국적 공휴의 축제일이 되어야 하는가의 결론도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유수의 반도체 및 자동차 수출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산업능력이 단순히 선진기술의 모방·도입만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비록 일정기간 단절의 기간은 있었어도 인류가 기록한 중요한 과학기술발전사에서 특기할만한 몇 가지의 중요한 업적을 남긴 우수한 민족의 후예이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이라는 한글 및 세계최초의 금속활자와 측우기의 발명 등등이 좋은 예이다. 「구텐베르크」의 조국인 독일에서 발간되는 독어권 최대의 대백과사전인 「브록하우스」에서도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으로 한국을 명기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날 가난이나 당쟁 때문에 겪었던 일부 부끄러웠던 역사나 또는 짧은 기간 망국의 수치 때문에 짓눌리거나 식상한 나머지 지나치게 자학하며 과거 우리의 자랑스러웠던 과학문화의 유산을 잊고 있다. 과거의 자랑스런 우리 과학문화 전통의 맥과 혼이 없었다면 오늘날 작게나마 다시 이루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크게 이루기를 기대하는 선진과학 및 기술국으로의 도약은 가능할까?.

최근 들어 과학사를 전공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과학과 기술사가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과학 및 첨단기술에 있어서도 옛것에 대한 이해를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한글날에 즈음하여 과학인으로서 또 한가지 부끄럽게 느끼는 점은 그렇게 과학적이며 합리적이어서 쓰기 편한 우리의 한글이 오히려 우리 과학기술인들에게서 적게 사랑받는 점이다. 이유는 주로 우리글로 발표되는 논문들은 외국인들에게 읽히지 않는다는 점과 특히 우리말로 발표된 논문들은 최근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국제적인 학술활동에 기준이 된다는 세계적인 과학문헌 인용색인집(예로 ISI 발행의 SCI 등등)에 수록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임에도 편리한 우리글을 놔두고 외국어 논문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과학기술계의 실상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의 과학수준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선진기술을 세계가 필요로 하게 되어 우리 과학기술계도 세종대왕의 높으신 한글창제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 이제 우리 과학기술계도 지금까지는 소원했던 우리말 과학기술 용어들을 다듬고 외국인을 지나치게 의식할 것 없이 우리글로 좋은 논문을 많이 써서 발표하여 한글사랑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